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선 피폭량 정규직의 9배...전국 최고

한울원전 7.97배-고리새울원전 7.67배-월성원전 4.18배 순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직의 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원전 중 최고 수준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은 0.48mSv(밀리시버트)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약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한빛원전으로 협력업체

직원 1인당 피폭량은 0.48mSv로 정직원 1인당 피폭량 0.05mSv에 비해 9.02배 높았다. 한울원전은 7.97배, 고리·새울원전은 7.67배, 월성원전은 4.18배 순이었다.

송 의원은 “하정직원이 정규직 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이유는 핵연료봉과 원자로 등이 위치해 방사선 수치가 높은 관리구역의 핵심 시설에 출입하는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전 노동자의 1인당 연간 피폭량 허용치인 50mSv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

는 입장이지만, 월성원전에서 543일간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연간 피폭량 허용치보다 낮은 42.88mSv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327일간 근무한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도 25mSv가량 피폭됐지만, 이듬해인 2013년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원전 노동자들은 항공운송업이나 방사선과 의료진 등 다른 방사선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방사선에 노출돼 각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수원은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원전노동자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메밀꽃 흐드러진 장흥 선학동 마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 메밀꽃이 눈부시게 만발했다. 고(故)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으로 유명한 선학동 마을에는 총 20ha 규모의 메밀밭이 펼쳐져 있다. 선학동 마을 주민들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어 절기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탐방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 '캐스퍼' 구매 시민 취득세 전액 지원

사전예약 대박이여 혜택...이용섭 “구매 때 내고 나중에 지역화폐로 환급”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첫 양산 모델인 경형 SUV '캐스퍼(CASPER)'가 온라인 사전판매에서 대박을 터트린 데 이어 주민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리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캐스퍼가 연착륙하는데 큰 성원을 보내

주시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게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다. 대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기동취재본부**

캐스퍼의 경우 기본판매가 대당 1370만원, 옵션은 2130만원으로, 취득세는 가장 비싼 옵션이 85만2000원에 이른다.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 35만2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 시장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우선 구매 당시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추진중이고, 지역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신세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

인구감소, 광양시는 '예외'...곳곳에 청신호

‘인구 유입·유지’ 투 트랙 전략
 명품 주거단지 인구회복 주요인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전남의 인구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는 매출 소폭의 인구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인구는 남성 7만8399명, 여성 7만1722명 등 15만121명이다.

상반기에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소폭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로 소폭 증가했다.

시는 ‘인구 유입과 유지’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정하고 더욱 강도 높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광양형 택지 개발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인구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이달 22일에는 광양읍 덕진 광양역플러스 496세대, 29일은 성황지구 푸르지오 더퍼스트 140세

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12월에는 금호동 포스코생활관 기숙사 5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인근 도시의 잇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젊은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 감소요인도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광양시에 브랜드 공동주택 건설이 이어지는 것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층 주거 안정을 위한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 대표사업이다.보통 전세자금만 지원해주는 타 지자체와 달리 광양시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은 물론 ‘주택구입 자금’까지 대출이자를 3% 범위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10월 중 신규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최근 지원 신청자 58명 중 20명이 지역 외 거주자며, 평소보다 상담·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인구 유입을 기대케 한다. **광양=심종섭 기자**

‘특 하면 물난리’ 양동시장 광주천에 가동보 설치

태평교에 국비 14억 투입

광주시가 집중호우 때면 어김없이 범람 위기에 직면하는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의 물난리를 막기 위해 가동보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천 양동시장 인근 범람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태평교 상류 낙차공을 철거하고, 대신 가동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차공은 하천의 유속을 조절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물 속에 산소를 공급해 지정작용을 도와주는 필수시설이지만 폭우 시 와류현상을 발생시켜 부분적으로 하천 범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가동보는 집중호우 시 일정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보가 넘어져 범람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태평교가 범람 위기를 처했던 점과 광주천이 지난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사실 등을 감안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태평교 상류 낙차공 철거와 가동보 설치 사업비로 14



지난 2020년 8월 7일 많은 비로 광주천이 불어나면서 광주 서구 양동시장 앞 태평교 밑으로 흐르는 강물이 범람 수위까지 도달하고 있다.

억 원을 확보했다. 가동보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도 마쳤다. 이와 관련, 시는 광주천을 대표 생태축으로 복원하고, 시민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중이다.

송용수 물순환정책과장은 “광주천이 무등산과 함께 대표 생태 축으로서 역할과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하천의 본질을 훼손하는 인위적 간섭은 가급적 지양하고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